

■ 주요 기사

○ 저출산 정책 관련(3건)

매경	베트남서 조롱거리 된 '한국 저출산 대책'
	정권 바뀔때마다 오락가락...152조 쏟아 붓고도 출산 되레 감소
	"인구문제, 가족계획아닌 국가차원서 선제 대응을"

○ 중국 제조업 인건비 관련(2건)

중앙	중국 제조업 시간급 3.6달러, 브라질·멕시코보다 50% 높아
한경	중국 '값싼 인건비'는 옛말 멕시코보다 70% 높다

○ 기혼여성 경력단절 관련(2건)

한경	결혼·출산·양육의 굴레...경단녀 700만명 육박
경향	기혼여성 44% "경력단절 경험"

■ 주요 칼럼 · 기고

○ 노동시간 단축 관련(1건)

한겨레	[세상 읽기] 노동시간 단축, 지루한 '밥벌이'를 더 많은 '여가'로! / 박종현
-----	---

○ 대선주자 복지정책 관련(1건)

중앙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고용 복지	제목	20, 30대 여성 미혼비율 50% 첫 돌파 A12면
		내용	27일 통계청의 '여성·출산력·아동 주거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 30대 여성 663만 명 중 미혼자 비율은 55.2%(366만 명). 이 연령층 미혼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처음 실시됐던 1925년 이후 90년 만에 처음
중앙	노동	제목	강원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첫 허가 A12면
		내용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지정을 강행. 교육부는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관련자 징계 요구와 교육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고용 복지	제목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편적 복지에 매달리는 대선주자들 A36면
		내용	지금은 보건·복지의 큰 그림이 필요. 경제 규모와 국민의식을 감안한 부담과 지출의 균형, 현금과 서비스의 조화 등을 고려한 한국형 '중부담-중복지' 모델이 필요
		제목	중국 제조업 시간급 3.6달러, 브라질·멕시코보다 50% 높아 E3면
		내용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005~2016년 3배 올라 시간당 3.6달러를 기록. 2016년 2.7달러의 브라질과 2.1달러의 멕시코보다도 50%가량 높음. 한국(15.8달러)의 23% 수준
매경	고용 복지	제목	베트남서 조롱거리 된 '한국 저출산 대책' A1면
		내용	한국의 '국가 실패'를 지켜본 베트남의 대응은 빨랐음. 한국보다 26년 늦게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원격의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농촌 의료복지를 강화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늦추겠다는 전략
		제목	정권 바뀔때마다 오락가락...152조 쏟아 붓고도 출산 되레 감소 A8면
		내용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망라해 나열한 기존 대책의 틀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과 인력을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제목	"인구문제, 가족계획 아닌 국가차원서 선제 대응을" A8면
		내용	응우옌반딴 베트남 인구국장은 "현재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2.1명으로 유지하는 양적인 정책과 함께 모성보호와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질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고용 복지	제목	중국 '값싼 인건비'는 옛말 멕시코보다 70% 높다 10면
		내용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이 2005년 1.2달러에서 지난해 3.6달러로 급등했다고 27일 보도
		제목	결혼·출산·양육의 굴레...경단녀 700만명 육박 9면
		내용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 수가 처음으로 고졸 여성 수를 추월했다. 늦은 결혼 등의 영향으로 20대 기혼 여성 가운데 아이가 없는 비율은 40%대로 높아졌다
경향	고용 복지	제목	기혼여성 44% "경력단절 경험" A20면
		내용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 여성 928만9000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696만명. 이는 전체 기혼여성의 44%에 해당
한겨레	노동	제목	[세상 읽기] 노동시간 단축, 지루한 '밥벌이'를 더 많은 '여가'로! / 박종현 31면
		내용	아직은 노동시간을 크게 줄일 때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유사한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적 가능성은 충분. 문제는 정치와 사회에 있고, 우리의 선입견
	고용 복지	제목	한국노총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라" 대선주자들에 제안 16면
		내용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서를 내어 "좋은 일자리 360만개 제안에 화답하는 대선 후보를 한국노총의 후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좋은 일자리 360만개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

* 금일 조선일보는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끝>